

스포츠

10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1년서 3개월로 경감…김호철 전 감독 자격정지 18일에 끝난다

〈남자배구대표팀〉

스포츠공정위 재심 끝 최종 결정
“배구협회도 책임” 귀책사유 물어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에서 대한배구협회가 김호철 전 남자배구 대표팀 감독에게 내렸던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3개월로 줄어 들었다.

김 감독의 징계는 4월 19일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오는 18일 자격정지가 끝나게 됐다. 재심청구 카드가 성공한 것이다. 스포츠공정위원들은 가장 먼저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막중한 위치에서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행동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한배구협회에도 사태를 이렇게 만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다.

배구협회는 그동안 프로팀으로 이적 추진은 김 감독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



대한체육회가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구협회가 김호철 전 대표팀 감독에게 내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3개월로 줄여줬다. 이날 소명에서 앞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김 감독.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고 협회의 임원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 감독이

1977년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는 등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로서 업적도 경감 사유 중 하나였다.

앞서 김 감독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재직하던 중 프로배구팀 OK저축은행과 계약을 타진했다는 이유로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배구협회는 품위손상을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이 과하다며 배구협회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이날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사자들에게만 통고됐다. 이날 재심청구에는 징계 당사자 김 감독과 대한배구협회 조영구 사무처장이 출석했다.

김 감독과 조 처장은 각각 시차를 두고 공정위원회에 출석해 양측의 대질은 없었다. 관건은 전임계약서의 유효 여부와 김 감독의 프로팀 접촉을 배구협회 회장

등 임원진이 사전에 알았는지 등이었다.

공정위원회 위원들은 대표팀 감독이 계약기간 중에 프로팀에 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맞느냐는 질문을 김 감독에게 물었다. 조 처장에게는 김 감독의 프로행 타진 여부를 배구협회가 안 시점을 놓고 꼼꼼히 확인했다. 위원들은 배구협회가 미리 알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던 사실을 들며 질문을 했다. 조 처장은 “사전논의는 공식절차가 아니고 홍보이사의 개인적인 사담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감독은 “이적을 추진한 것은 맞고 그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미 대표팀 감독을 사퇴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배구협회는 이적과 관련해서 모든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 내용도 협의했다”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녹취록은 재심청구 결정의 최대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국가대표는 달라”…원광대 문준섭 승승장구

남자대학부 단식 8강 강경문 제압
단체전서도 맹활약 우승에 큰 공헌

배드민턴 국가대표 문준섭(22·원광대)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문준섭은 9일 전남 화순군 이용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및 ‘2019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단식 16강전에서 정민선(한림대)을 2-1(18-21, 21-18, 21-11)로 꺾고 8강에 올랐다. 점전 끝에 첫 세트를 내줬지만, 침착하게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오며 균형을 맞춘 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서는 21-11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쉽게 경기를 끝냈다.

문준섭은 이번 대회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6일 열린 남자대학부 단체전에서는 단식조 경기 첫 번째 선수로 나서 가뿐하게 1승을 팀에 안겼다. 문준섭의 활약을 힘에 낸 원광



원광대 문준섭이 전남 화순에서 진행 중인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 및 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에서 국가대표다운 면모를 뽐내고 있다. 9일 남자 대학부 단식 16강에서 백석대 정민선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하는 표정이 진지하다.

하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대는 최지훈, 서승재-방윤담(복식)을 앞세워 결승에서 한림대를 3-0으로 꺾고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원광대는 현재 가장 많은 국가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문준섭을 중심으로 서승재, 임수민, 최지훈까지 무려 4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현재 대학부에서는 최강의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다.

문준섭은 이 중에서도 최근 활약이 가장 두드러진다. 앞서 열린 제 62회 전국 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도 팀의 단체전 우승에 있어 큰 공을 세웠다.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 단식에서도 순항을 하고 있어 다관왕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팀 동료인 최지훈이 16강전에서 떨어져 ‘집안 잔치’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됐지만 혼자만의 활약으로도 여전히 우승 후보다.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순항을 하고 있는 그가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포스트 이용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지 큰 관심이 모아진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제32회 대통령기 요트대회
내일부터 부안 물살 가른다

대한요트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전라북도요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가 전북 부안군 궁항 변산요트경기장에서 펼쳐진다.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 개최되는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는 딩기요트와 윈드서핑으로 종목을 구분해 열린다. 딩기요트 종목에는 300명이 출전할 예정이고, 윈드서핑에는 50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된다. 두 종목 모두 휴식일은 없다. 11일 개막을 기점으로 15일 폐회식까지 연달아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 규모도 상당히 크다. 선수·임원을 합쳐 500명이 참석 하는데, 가족·관객이 1000명 가세해 전체 참여 인원은 1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열전을 지켜보기 위해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한여름의 축제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대한체육회가 후원한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공공스포츠클럽 한 눈에
종합정보 홈페이지 오픈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공공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비영리법인)이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집 근처 스포츠클럽에서 저렴한 회비로 전문 지도자에게 운동을 배우며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총 97개를 운영하며 2022년까지 전국 시·군·구 1개씩 228개의 스포츠클럽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개설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안내,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인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가까운 스포츠클럽, 지역 내 스포츠클럽 및 운영 종목 검색도 가능하다. 개별 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새소식과 사진, 동영상 등은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홈페이지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동 연동으로 업데이트되어 각 클럽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경기결과

●남자 일반부 단식 3회전=이현일(밀양시청) 2-0 김민기(세마울금고), 최영우(광명시청) 2-1 이상호(수원시청), 한기훈(광명시청) 2-0 강경훈(고양시청), 강동훈(상무) 2-1 양지현(광진시청), 홍지훈(수원시청) 2-0 김우진(고양시청), 조진열(성남시청) 2-0 최태원(김천시청), 김윤현(당진시청) 2-0 김동욱(요맥스), 박원호(성남시청) 2-0 송병수(충주시청)

●여자 일반부 단식 3회전=이정미(전북은행) 2-0 김유림(영동군청), 박수민(시흥시청) 2-0 백승연(화성시청), 김예지(KGC) 2-0 유소진(영동군청), 고은별(포천시청) 2-0 김성민(김천시청), 박가은(김천시청) 2-1 김민지(포천시청), 이세연(KGC) 2-0 송현주(전북은행), 전주이(화순군청) 2-0 변수민(세마울금고), 김효연(김천시청) 2-0 배지현(전북은행)

●남자 일반부 복식 8강=이상원, 한요셉(충주시청) 2-0 박세웅, 손주형(밀양시청), 한도성, 이상훈(세마울금고) 2-1 정정영, 김대원(요맥스), 김동주, 박경원(상무) 2-0 김동현, 조해성(광진시청), 김덕영, 강지원(세마울금고) 2-0 김상수, 임지수(영진시청)

●여자 일반부 복식 8강=윤민아, 배지현(전북은행) 2-0 채현희, 이승혜(영동군청), 김혜정, 김찬미(세마울금고) 2-1 고아라, 유재현(화순군청), 공화용, 성승연(전북은행) 2-0 방지선, 정나은(화순군청), 박소영, 윤태경(포천시청) 2-0 전다비, 노다연(화성시청)

●일반부 혼합 복식 8강=김대은(요맥스), 박상운(시흥시청) 2-0 이상원(충주시청), 채현희(영동군청), 박경원(상무), 정나은(화순군청) 2-1 한요셉(충주시청), 이승혜(영동군청), 김동주(상무), 유재현(화순군청) 2-0 강지옥, 김찬미(세마울금고), 김덕영, 김

해정(세마울금고) 2-0 최종우(상무), 방지선(화순군청)

●남자 대학부 단식 8강=안상욱(동의대) 2-1 서재우(백석대), 둔준필(원광대) 2-0 장정권(동의대), 조근아(한림대) 2-0 전준형(원광대), 변장수(백석대) 2-0 이영민(백석대)

●여자 대학부 복식 8강=신효주, 박진희(동양대) 2-0 백경은, 노연지(군산대), 이하나, 김수민(공주대) 2-0 김인지, 박지윤(군산대), 기보현, 정선재(부산외대) 2-0 이선경, 정채린(군산대), 고해주, 황현정(군산대) 2-0 고성희, 정채희(목포과학대)

●남자 대학부 복식 3회전=전호진, 윤정환(한림대) 2-1 김윤준, 이상현(경희대), 서강민, 김태원(대구가톨릭대) 2-0 김동영, 박인술(전남과학대), 박지수, 전상필(동리대) 2-0 강산, 서재우(백석대), 서승재, 임수민(원광대) 2-0 안진하, 박문선(백석대), 강성우, 김영정(전남과기대) 2-1 박민혁, 정호연(한림대), 방윤담, 박

희영(원광대) 2-1 장민호, 나현철(세경대), 최혁균, 이상민(동의대) 2-0 고석건, 박성우(경희대), 윤대일, 이재철(한림대) 2-1 박철원, 육성현(백석대)

●대학부 혼합 복식 8강=이인규(백석대), 이하나(공주대) 2-0 임상준(세한대), 채희수(조선대), 김재영(백석문화대), 김수민(공주대) 2-1 백대현(경희대), 조연아(중앙대), 서강민(대구가톨릭대), 김민지(군산대) 2-0 윤정환(한림대), 고해주(군산대), 김태원(대구가톨릭대), 황현정(군산대) 2-0 정우진(세한대), 오수현(목포과학대)

〈9일〉

●주최: 스포츠동아·동아일보 ●주관: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후원: 화순군·화순군의회·대한배드민턴협회·전남배드민턴협회·화순군체육회·화순군배드민턴협회

광주수영 총사업비 2036억…FINA도 인정한 ‘저비용·고효율’

〈국제수영연맹〉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D-2



개막이 임박한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12~28일)의 가장 큰 특징은 ‘저비용·고효율’이다. 이번 대회에 들인 총사업비는 2036억 원으로, 이 중 운영비가 1304억 원이고 시설비는 732억 원이다. 이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소요된 총사업비(3572억 원)

의 약 60%에 불과한 예산이다. 특히 모든 경기장들을 새롭게 건립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대회 폐막 후 해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주 경기장으로 경영과 다이빙 경기가 진행될 남부대국제수영장은 관중석을 기존 3400여석에서 1만1000석으로 증축하는 정도에 그쳤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대회 소식을 타전할 전 세계 미디어의 허브가 될 메인프레스센터(MPC)도 주 경기장 증축 관중석 하부에 임시 시설로 만

들어졌다. 유럽과 북미에서 대단한 인기를 끄는 수구를 위한 경기시설은 남부대 운동장에 임시로 만들었다. 관람석은 4340석을 설치했다. ‘수중 발레’ 아티스트 수영이 치러질 경기장 역시 염주종합체육관에 임시수조 두 개를 들여와 지었다. 무등산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하이다이빙경기장도 관중석 3047석을 포함해 임시로 만들어졌다. 광장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강조한 FINA는 6일부터 8일까지 최종 점검을 마친 뒤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대회로 남으려면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단체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 및 감염병관리대책본부가 지난 달 말부터 가동돼 경기 및 선수촌 정비, 치안, 교통, 사이버 안전, 질병예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진행 중이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